

에피소드 3 더 Killing

1. 홍제천 / 밤

레깅스 차림으로 천변을 조깅하고 있는 희정(29).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고 간간히 스쳐 지나는 정도만 보인다.

포니테일 머리에 이어폰을 꽂은 채 한참을 조깅을 이어가는 희정. 그 뒷모습이 가볍고 다부지다.

2. 편의점 앞 / 밤

봉지에 간단한 먹거리를 사들고 편의점을 나오는 희정.

가로등을 지나 인적 없는 골목을 걸어간다.

이때 맞은편 건물 구조물 아래 어둠 속에서 이를 주시하는 검은 실루엣.

3. 오피스텔 건물 앞 -안 / 밤

현관문을 열고 1.5층 계단을 올라가는 희정.

그런데 이내 뒤따라 현관으로 들어서는 한 새내(30대 중반), 후드 잠바를 입고 있다.

이에 멈칫 서서 돌아보는 희정.

그런데 후드는 아랑곳 않고 2층 계단으로 향한다.

무심결에 복도 끝방으로 향하는 희정.

그 순간 2층 계단으로 오르던 후드의 걸음이 우뚝 멈춘다.

4. 희정 방 앞 / 밤

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여는 희정.

그런데 불현 듯 뒤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길한 기운에 돌아본다.

어느 틈에 바로 뒤에 서 있는 후드 잠바

놀랄 틈도 없이 희정을 덮치며 순식간에 안으로 들이닥친다.

5. 원룸 안 / 밤

동시에 바닥에 쏟아지며 제멋대로 뒹구는 봉지와 내용물들.

희정을 뒤에서 휘감은 채 바닥에 넘어진 후드는 약품을 적신 손수건으로 희정의 코와 입을 틀어막으며 온 힘을 다해 옥죄는다.

느닷없는 상황에 발악하는 희정. 팔꿈치로 뒤를 공격해 보지만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

그 와중에 후드의 상의 주머니에서 갈색 포르말린 약병이 빠져나온다.

다시금 손수건을 왼 손에 힘을 주는 후드.

그러자 잠시 후 의식을 잃고 맥없이 늘어지는 희정.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후드.

잠시 그렇게 누워 있다 문득 오른쪽으로 별실처럼 룸이 하나 더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는 일어나 문 열린 작은 방(드레스 룸) 안을 확인하는 후드.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 희정을 안쪽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간다.

그리고는 매트리스 위에 희정을 털썩 올리는 후드.

(침대 다리는 없고 얇은 매트리스만 깔려 있는)

그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후드.

문득 희정의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을 보고는 흥미로운 듯 빼내 든다.

후드 줄도 없는 거를...

그리고는 어둠에 싸인 내부를 휘 둘러보고는 널브러진 희정을 내려다본다.

이윽고 그 옆에 다소곳이 눕는 후드.

손끝으로 얼굴이며 목선, 바디 라인을 따라 아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다.

한참을 그렇게 터치를 이어가던 후드.

이번엔 희정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는 땀냄새를 탐닉한다.

이어지는 후드의 전율.

이내 헛바닥으로 희정의 불이며 목 부위를 끈적하게 핥는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후드.

희정의 바람막이 잠바 지퍼를 열고 레깅스마저 벗기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희정의 폰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무시하려해도 계속 울리는 벨소리가 못내 거슬린 후드.

폰을 집어 들고는 종료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는 희정 몸 위로 제대로 자세를 잡는데-

이번엔 등 뒤에서 끼이익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진다.

아까부터 깜깜했던 내부.

돌아보면, 놀랍게도 반대편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 위치한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아까부터 켜져 있던 스탠드 불빛에 드러나는 실루엣.

모자를 눌러 쓴 채 한 손엔 특수 부대원용 칼을 들고 있는 그는, 킬러 K(40대 초반)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안이 빙빙한 후드.

후드 뭐야 이 시츄에이션?

여전히 바위처럼 서 있는 K.

후드 남친이야?

여전히 반응이 없는 K.

문 열린 화장실과 칼을 차례로 보다 다시 K를 보는 후드.

**후드 (가웃) 놀라지도 않네.
 뭐야 너?**

대답 대신 발 앞에 떨어져 있는 후드의 손수건과 포르말린 악병을 보는 K.

**K (중얼) 이번 만남은 설레일 줄 알았는데 성가시게 됐네.
후드 뭐?**

다시금 후드를 한참 바라보던 K. 급기야 걸음을 옮겨 후드 쪽으로 다가간다.

그 기세에 움찔한 후드. 본능적으로 바로 뒤 험탁 위에 놓인 여성용 아령(3kg) 하나를 움켜쥐는다.

그럼에도 거침없이 다가오는 K.

그 K를 향해 후드가 아령 하나를 냅다 던지는데-

이를 가볍게 피하는 K.

이어 또 다른 아령 하나를 집어드는 후드.

그런데 이번엔 K의 발길질이 후드의 손목을 먼저 걸어차 버린다.

그 바람에 악 소리와 함께 아령을 놓치는 후드. 손목을 움켜쥐며 주저앉는다.

이러한 일련의 K의 움직임엔 일반인과는 다른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후드를 내려다보며 품에서 원가를 꺼내는 K.

그리고는 그 원가를 후드 앞에 툭 떨어뜨린다.

몰래 찍힌 희정의 클로즈업 사진.

목 부위에 붉은색 펜으로 섬뜩하게 그어져 있고 그 하단엔 희정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

놀란 눈으로 K를 올려다보는 후드.

후드 뭐야, 업자야?

이내 어이없는 얼굴로 희정을 돌아보는 후드.

후드 (어이없는 웃음) 나 참.... 좇같은 날이네.
어째 이런 날이 다 있네.

K

후드 (한숨) 근데 아저씨. 나 아직 애 건드리지도 않았어. 손도 못 댔다고.
봤으니까 알 거 아냐.
아저씨 일에 끼여든 건 미안.... 니미 이게 미안한 일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나 오늘 여기 오지도 않았어. 아저씨 본 적도 없고.
씨발 내가 경찰 가서 이러쿵저러쿵 사발 풀 리도 없잖아?
그니까 아저씨 일 보셔. 한 번 빨고 조지든 바로 조지든 맘대로 하시고 나는 깔끔하
게 빠져 주께. 오케이?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K를 비껴 걸음을 옮기는 후드.

그런데 이런 후드의 어깨를 털썩 잡는 K.

불길한 느낌에 돌아보는 후드.

K 근데.....

후드

K 강도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 될 거야.

후드 ???

K 경찰이 근처 어딘가에서 니 시체를 발견 할 거고.

K의 계략에 섬뜩함을 느낀 후드.

바로 옆 벽에 걸려 있는 원가를 잡아채 K의 얼굴을 향해 재빠르게 휘두른다.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이를 피한 K.

다시 한 번 날아드는 둔기를 탁 잡아채 옆어치기로 반대편 벽으로 날려버린다.

쿵!! 벽에 부딪혀 바닥에 고꾸라지는 후드.

이런 후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일으키는 K.

벽으로 밀어붙임과 동시에 쥐고 있던 칼날을 후드의 가슴팍에 딱 박는다.

그런데 맨손으로 칼날을 붙들고는 사력을 다해 버티는 후드.

칼날을 쥐 양손에 핏물이 줄줄 흐른다.

그리고는 살기 어린 눈으로 K를 노려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 후드.

후드 **넌 나를 잘못 건드렸어.**
왜냐면.... 방해 받는 걸 즐라 싫어하거든.

아랑곳 않고 더 세계 칼을 박아 넣는 K.
후드 역시 이를 악물고는 칼날 천 손에 온 힘을 집중시킨다.
그리고는 이마로 K의 안면을 그대로 박아 버린다.
그 바람에 얼굴을 움켜쥐고 뒤로 휘청이는 K. 입술과 이빨 사이로 피가 터져 나온다.
잔뜩 인상이 구겨진 K.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눈 앞에 후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K.
동시에 딸각 실내등이 켜지며 눈부시게 환해지는 실내.
그 바람에 K가 눈을 찌푸리는데 찰칵!
현관문 앞에 서서 폰을 들고 선 후드. 그 손에 든 폰 화면에 K의 모습이 찍혀 있다.

후드 **어쩌나.**
이제 강간살인범으로 나 대신 널 찾을 거 같은데.

그리고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으로 사라지는 후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인지 그가 사라진 현관문 쪽을 잠시 멍하니 쳐다보는 K.
어떤 결심에 이르고 급기야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한다.

6. 오피스빌 입구 / 밤

그렇게 다급히 건물을 달려 나오는 K.
오른쪽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후드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뒤쫓는다.

7. 주택가 / 밤

후드를 쫓아 건물들 사이 좁은 통로를 빠르게 지나는 K.
그렇게 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모퉁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후드가 벽돌로 이마를 내리 찌른다.
그 바람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K.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 후드는 또 다시 보이지 않는다.
잔뜩 험악해진 얼굴로 후드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쫓기 시작하는 K.

8. 원룸 안 / 밤

어느새 정신을 차린 희정.
지끈거리는 머리로 몸을 일으켜 앉는다.
그러다 반쯤 벗겨진 츄리닝 바지를 무의식적으로 올려 입는 희정.
몸을 일으키다 휘청이는 희정. 잠시 몸을 가누기 위해 의자에 앉는다.
온통 아수라장에 곳곳에 핏자국마저 보이는 내부.
아연한 얼굴로 이를 살피는 희정.
그러다 바로 뒤 벽에 걸린 미니 보드판을 돌아본다.
보드판엔 최근 발생한 후드의 범행들을 스크랩한 기사들이 줄줄이 붙어 있고 그 옆엔 누군가에게 포착된 후드의 뒷모습 사진도 함께 보인다.
그리고 그 아래 책상엔 경찰 행정 관련 책들과 법규 관련 책들이 꽂혀 있고 주변으로는 경찰복을 입은 희정의 사진이 여럿 보인다.

9. 드레스룸 / 밤

룸으로 들어온 희정. 벽장문을 열어 선반 안쪽에서 권총과 탄창을 꺼낸다.
그리고는 서둘러 룸을 나서다 멈칫한다.
다시 돌아서 옷장 안을 살피는 희정.
옷장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셔츠들.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간격을 이탈해 있다.
손을 뻗어 이를 다시 조정하는 희정. 한 번에 되지 않자 두 번, 세 번 그 간격을 완벽히 조정한다.
그리고 그 아래 선반엔 경찰복과 각각의 옷들이 현기증 날만큼 각 잡히게 정돈되어 있다.

10. 원룸 안 / 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폰을 챙겨 나오는 희정.
그런데 바로 옆 자신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11. 오피스텔 입구 / 밤

현관을 나오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는 희정.

12. 건물 앞 골목 / 밤

바닥의 또 다른 핏자국을 확인한 희정, 오른쪽 골목으로 방향을 잡는다.

13. 주택가 / 밤

썩7의 건물 사이 좁은 통로로 접근하는 희정.

이런 희정의 시야에 쓰레기봉투들 위에 놓인 피 묻은 형겅이 보인다.

가로등빛이 들지 않아 폰을 꺼내 라이트를 켜는 희정.

모퉁이에서 피 묻은 벽돌을 발견하는 희정.

뜨그리고 앉아 이를 살피다 주위에서 일련의 격투 흔적도 찾아낸다.

14. 어느 골목 / 밤

급기야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멈춰선 희정.

폰 라이트를 이리 저리 비춰도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바람에 난감한 얼굴로 갈피를 못 잡는 희정.

잠시 그렇게 어찌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데-

이때 어디선가 빠지직 문짝 부서지는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크게 들린다.

그리고 그 소리는 또 한 번 더 이어진다.

이때 카메라 직부감으로 높이 솟구치면-

바로 근처에 폐허나 다름없는 재개발 구역이 넓게 보인다.

15. 재개발 구역 안 / 밤

폐허에 가까운 재개발 일대.

그 한가운데 형체를 유지한 건물들 몇이 보이고 그 앞에서 후드가 K의 공격에 당하고 있다.
폐 가구들 더미에 처박혀 있는 후드.
이런 후드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리는 K.
그런데 이를 간신히 피한 후드가 바닥의 날카로운 철조각으로 K의 종아리에 박아 버린다.
그 바람에 욱 소리와 함께 뒤로 주춤하는 K.
그 틈에 몸을 일으키는 후드. 손엔 각목이 들려 있다.
이를 이용해 연이어 공격하는 후드.
그러나 K는 어렵지 않게 이를 피한다.
급기야 종아리에 박힌 철조각을 떼어내는 K.
잠시간 그렇게 대치하는 둘.
이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살기로 총만하다.
이런 K를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는 후드.

후드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K
후드 그 년 정체가 뭐야?
 원데 너 같은 종자들이 들러붙지?
K 죽을 놈 치곤 질문이 순진하네.
 대한민국 형사 죽이고 싶은 인간들 한 둘은 아니잖아?
 나야 돈만 받으면 되니까.
후드 (의외) 형사? ㅎㅎ.
 나이스. (손끝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손맛이 짜릿했나?
K 한심한 새끼.
후드 뭐?

그 말에 화가 솟구친 후드가 참지 못해 달려들고 이를 피하며 다시 뒤엎키는 둘.
계속된 공방에 조금씩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다 빈틈을 노린 K의 역습에 휘청 자빠지는 후드.
K가 그 위로 바로 옆에 있던 커다란 폐 가구를 쓰러뜨려 버린다.
퍽 소리와 함께 늘어지는 후드.
이를 신경질적인 얼굴로 내려다보는 K.
폐 가구를 치우자 그 아래 후드의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난다.
맥없이 널브러져 있는 후드 위에 올라타 급기야 목을 따려는 K.
후드가 팔을 뻗어 버둥거려 보지만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때 울리는 총성 탕-.
동시에 등을 맞고 쓰러지는 K.
어리둥절한 후드.

이때 반대편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희정. 이쪽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를 알아보고는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후드.
간신히 일어나 앉는다.
어느새 다가와 옆에 서는 희정.

후드 (비아냥) 형사님 납셨네.
참 절묘한 타이밍이야.

이런 후드를 잠시 노려보던 희정.
그대로 얼굴을 발로 걷어차 버린다.
그 바람에 벌렁 나자빠지는 후드.

후드 (컹컹거리는) 이 새끼만 아니면 아까 완벽했는데. 안 그래?
(컹컹) 사실 너도 좀 꼴렸지. 내가 기술이 좀 허벌나거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드의 얼굴을 몇 번이고 짓밟아 버리는 희정.
동시에 입술과 얼굴이 터지며 널브러지는 후드.
그런데 이때 옆에 쓰러져 있던 K가 한순간 몸을 일으켜 희정을 덮친다.
놀란 희정이 날렵하게 몸을 비틀며 공중차기로 복부를 걸어챈다.
저만치 나가떨어지는 K.
그에게 저벅저벅 다가가 총구를 겨누는 희정.
K는 총알이 등을 관통해 복부까지 피를 흘리고 있다.
그 위로 썬 10의 사진을 툭 떨어뜨리는 희정.

FLASH BACK 원룸 안 /

매트리스에 쓰러져 있다 의식을 돌아오는지 눈꺼풀이 떨리는 희정.
그 희미한 시야로 후드와 대치하고 선 K가 어렴풋이 보이고 ‘업자야?’, ‘강도 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이 될거야’ 등등의 말이 아련히 들린다.

폐 건물 앞.

희정 (K에게) 뭐야 이거?
K

희정 말 해. 죽기 싫으면.
K

그럼에도 말이 없는 K.
경고의 의미로 바닥에 총알 하나를 발사하는 희정.

K 내가 말할 리 없다는 거 알 텐데?
희정 몰라. 말해.
후드 (컹컹)... 그 새끼. 너 죽이러 온 놈이야. 사주 받고.

그 말에 말없이 잠시 K를 내려다보는 희정.
총구를 유지한 채 몸을 낮춰 K의 몸 여기저기 수색한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희정.

후드 (컹컹) 어이 이쁜 형사님.
 내가 알려 줄 수 있는데. 그 새끼 한테 들었거든.....
 (컹컹)... 그러니까 나 살려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탕탕탕- 불을 뿜는 총구.
그 바람에 총알구멍이 뚫린 후드는 절명하고 만다.
이런 희정의 기세에 짐짓 당황하는 K.

희정 내가 왜 그동안 징계를 세 번이나 먹었는지 알아?
K
희정 말을 잘 안 들어서야. 왜 그렇게 하지 말란게 많은지.
 오발 사고도 다들 오발인 줄 알아.
K
희정 셋 중 하나겠지.
 내 총 맞고 병신 된 재범이파 동식이, 나 때매 업체 말아 먹은 썬라이즈 클럽 대표
 전형식. 아니면 CY 그룹 둘째 아들 최정민. 아냐?
K

그러면서 또 한 번 울리는 총성. 탕-.
머리통이 터지며 그대로 쓰러지는 K.

희정 모르면 할 수 없지.

그러고는 아무 일 아닌 듯 일어서는 희정.
그런데 이때 희정의 폰이 울린다.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망설이는 희정. 한참을 울리다 멈추는 벨소리.
이내 도착하는 폰 문자.

INSERT 폰 화면 / 발신자 '3팀장'

'전화도 꺼 놓고 뭐하는 거야? 상황 발생했으니까 빨리 튀어와. 알았어?'

하지만 굳은 얼굴로 폐허 사이로 빠져나가는 희정.

컴컴한 그 뒷모습에 결연함이 느껴진다.

-끝-